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함언-비함언 동사에 대한 이해 연구*

유은지** · 이영주***

(서울여자대학교)

Ryu, Eun Ji & Lee, Youngjoo. (2021).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implicative and non-implicative verb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2), 47-70. This paper examines Korean learners' understanding of implicative and non-implicative verbs in English. The two types of verbs a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English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entailment of their complement clause. In Korean, by contrast, the validity of the embedded clause does not depend on the verb because the verb itself is not implicative. The implicative meaning arises from complex sentence structures containing certain conjunctive endings. Due to these cross-linguistic differences, Korean learners of English who assume the semantic equivalence of similar corresponding verbs are predicted to rely on their L1 knowledge and fail to distinguish implicative verbs from non-implicative ones. In order to confirm this prediction, this study examined 27 advanced and intermediate Korean learners' understanding of English implicative and non-implicative verbs through translation and entailment checking tasks. The results confirmed the prediction: many participants failed to underst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ypes, and performed particularly poorly on the implicative verb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L2 vocabulary teaching and translation training, namely that explicit instruction is required on the entailment component of implicative verbs.

주제어(Key Words): 함언 동사(implicative verbs), 비함언 동사(non-implicative verbs), 함의(entailment), 모국어 전이(L1 transfer), 의미 전이(semantic transfer)

*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세 분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346).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적절한 한국어 구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함언 동사는 동사의 목적어와 *to*-부정사가 형성하는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는 결과 보장성을 지닌 동사들로 *force*, *persuade*, *enable* 등을 포함하고, 비함언 동사는 *order*, *allow*, *tempt* 등과 같이 결과 보장에 대한 함의가 없는 동사들이다 (Karttunen, 1971, 2012; Givon, 1984). 한국어에서 내포문 명제에 대한 함의는 동사의 문제라기보다 구문의 차이로 존재하기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함언-비함언 동사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가 의문으로 제기된다. 모국어의 의미 지식이 외국어의 의미 습득이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전이(transfer)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언어에서 경험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Odin, 1989). 특히 함의 지식의 경우에는 영어 동사나 구문이 표현하는 종결성(telecity) 함의와 관련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따라 상이한 습득 양식을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스페인어와 불가리어 모국어 화자들(Slabakova, 2000), 중국어 화자들(Yin & Kaiser, 2011), 그리고 한국어 화자들(Kim et al., 2020)에게서 모국어와 영어가 유사한 경우에는 영어의 종결성 함의를 순조롭게 습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국어의 지식을 전이하여 의미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연장선에서 함언 동사의 함의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정확히 이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영어 교육의 현장에서 어휘 교육은 어휘의 일차적인 의미에 근거한 대응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에,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각 동사별 함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각 동사를 적절한 한국어 구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함언-비함언 동사의 구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어휘 교육과 번역 훈련에서 엄밀한 의미론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고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영어의 함언-비함언 동사, 한국어 함언-비함언 구문의 구분을 제시하고,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함언-비함언 동사 구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연구의 대상, 도구, 절차 등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논의한다. 끝으로 5절에서는 논의의 요약과 함께 교육적 고찰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의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

- (1)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 (2)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동사 *force*의 사전적 의미는 “to make somebody do something that they do not want to do”, 동사 *order*의 사전적 의미는 “to use the position of authority to tell somebody to do something or say that something must happen”이다.¹⁾ 두 동사 모두 주어와 목적어에게 내포구의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문장 형식의 측면에서도 목적어와 *to*-부정사구가 뒤따르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두 동사의 쓰임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 두 동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전체 문장과 목적어 구에 내포된 문장 사이에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이다.

Karttunen(1971) 이래로 잘 알려진 바대로 *force*와 같은 함언 동사는 목적어 구에 내포된 명제가 반드시 참임을 보장하지만 비함언 동사는 내포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²⁾ 즉, 예문 (1)은 아래 (3)을 함의한다. 예문 (1)의 의미는 단순히 강도가 경찰에게 항복을 요구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함언 동사 *force*는 경찰이 항복을 요구했고 강도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항복했다는 내용까지 보장한다. 이와 반대로 비함언 동사의 경우, 목적어 구문에 내재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명제는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동사 *order*는 비함언 동사로, 예문 (2)에서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더라도 군인들이 실제로 사격을 했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2)는 (4)를 함의하지 않는다.

- (3) The robber surrendered.
- (4) The soldiers fired.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이러한 의미 차이는 선행절이 내포한 명제를 부정하는 문장이 후행절에 올 때 의미가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Oxford Learner's Dictionary 참조

2) 함언 동사의 내포구 명제 함의는 문장의 형식이나 시제가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의문문이나 부정문, 미래 시제나 조동사 추가 등의 환경)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과거시제의 평서 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 (5)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but he didn't surrender.
 (6)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but they didn't fire.

함언 동사가 보장하는 내포 명제를 후행절이 부정하는 (5)는 의미적 모순이 발생하지만, 비함언 동사의 경우 목적어 구문의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6)에서는 의미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6)의 후행절은 전체 문장의 맥락이 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선행절만으로는 내포문의 명제가 실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후행절이 그 의미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일차적 의미가 유사한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짝으로는 *force-order* 이외에도 *prevent-forbid*, *trick-tempt*, *enable-allow*, *let-permit*, *persuade-urge* 등이 있다. 표면적인 의미의 유사성만을 고려하여 이들 동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 차이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특징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 (7) The swindler *tricked* the old man into lending him \$500.
 (8) The kidnapper *tempted* the child to get into the car.

예문 (7)의 *trick*은 함언 동사, (8)의 *tempt*는 비함언 동사이다. 즉, 예문 (7)의 노인은 사기꾼에게 500달러를 빌려준 반면, 예문 (8)의 아이가 차에 탔는지는 불확실하다. 영한사전에서 *trick*은 ‘남을 속여서 -하게 하다, 속이다’로, *tempt*는 ‘-하도록 부추기다, (나쁜 일을 하도록) 꾀다, 유혹하다, 유도하다’라고 정의되어 있다.³⁾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한국어의 일차적인 대응어 ‘속이다’와 ‘유인하다’를 이용해서 예문 (7)과 (8)을 각각 (9)와 (10)과 같이 번역한다면 두 경우 모두 영어의 비함언 동사와 같은 해석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⁴⁾

- (9) 사기꾼이 500달러를 손에 넣으려고 노인을 속였다.⁵⁾

3) 네이버 영한사전 (동아출판, YBM) 참조

4) *tempt*의 사전적 의미는 ‘유도하다’이지만 예문 (8)에서는 유도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유도하다’ 대신 ‘유인하다’로 사용하였다.

5) 시제소와 결합하는 영어 문장의 본동사(*trick*, *tempt*)를 한국어 문장에서도 본동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복합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을 위해 연결어미가 필요하게 된다. (9)의 비함언적 해석은 의도 표현인 ‘-려고’가 연결어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내포문에 대한 함의 여부가 개별 동사가 아닌 연결 어미나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2절의 논의 참조). 심사자 중 한 분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7)을 (9)처럼 번역한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위 논의의 초점은 비함언적 번역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번역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보 누락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다. 또한 피험자들 중 절반 정도가 제시

(10) 납치범이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유인했다.

예문 (9)에서 사기꾼이 노인을 속였다는 것은 사기꾼이 속인다는 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나타낼 뿐 노인이 실제로 속아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보장하진 않는다. 예문 (10)도 납치범이 아이를 유인하는 행위를 시도했을 뿐 아이가 실제로 차에 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국어의 ‘속이다’와 ‘유인하다’는 모두 영어 동사 *trick*과 달리 내포구에 대한 함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사기꾼이 500달러를 손에 넣으려고 노인을 속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꾼을 의심했던 노인은 돈을 건네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12) 납치범이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유인했다.

하지만 아이는 완강히 거부했다.

두 경우 모두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의미의 상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만약 영어 함언 동사 *trick*이 보장하는 함의 관계가 한국어 동사 ‘속이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예문 (11)은 앞뒤 문장의 의미가 상충되어 비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순 없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점을 통해 연결어미 ‘-려고’가 내포하는 선행절은 전체 복합문에 의해 함의되는 명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예문 (12)의 경우, 명제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 비함언 동사의 특성이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예문 (11)과 (12)를 통해, 영어 함언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응어를 활용한 일차적인 번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복합문을 통해 함의 명제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동사의 함의가 그와 대응하는 한국어 어휘에 부재하는 현상이 함언 동사에서만 관찰되는 특별한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휘 사동(*lexical causatives*)이나 상태변화동사(*change-of-state predicates*)의 영역에서 영어 동사가 가진 함의나 정점(*culmination*) 의미가 한국어 동사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논의되어 왔다 (Kim, 2005; Beavers & Lee, 2020). 영어 동사의 경우 전달하는 내포문이나 결과 상태의 성립이 맥락에 관계없이 보장되기에 그것을 어휘 의미에 반영함으로써 함의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 동사의 경우 동사 자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휘 사동, 상태변화동사, 그리고 함언 동사 세 경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가능성에 근거해볼 때 영어 어휘가 지닌 함의가 한국어에서는 함축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⁶⁾

된 보기 중 비함언적 번역인 (9)를 적절한 번역으로 선택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비함언적 번역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2.2. 한국어의 함언 구문과 비함언 구문

영어의 함언 동사가 보장하는 함의 관계, 즉 내포구 명제가 참임을 한국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동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연결어미를 활용한 복합문 구조를 통해 사건의 각 부분이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연결어미 중 ‘-아/어서’를 활용한 복합문 구조가 영어의 함언 동사를 번역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영어 함언 및 비함언 동사의 명제 실현 여부에 따른 의미 차이를 한국어에서도 여실히 전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13) a. 지역 주민들이 시장에게 정책을 바꿀 것을/바꾸라고 강요했다.⁷⁾
 b. 지역 주민들이 압박하여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었다.

예문 (13a)에서 ‘-라고’는 어떤 행위의 목적, 의도를 나타내며, (13b)에서 ‘-여’는 원인 및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⁸⁾ (13a)는 정책을 바꾼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시장에게 강요했다는 의미로, 강요의 행위와 강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는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목적 달성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일 뿐 그것의 결과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예문 (13b)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 원인과 결과가 모두 나타나 있어 행위의 실

6) 한 분의 심사자께서 함의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함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영어 문장 (1)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두 문장 (ia)와 (iia)에서 (ia)는 내포절 명제(‘강도가 항복했다’)를 함의하지 않기에 (ib)와 (ic)에서 보는 것처럼 내포절 명제가 실현되든(‘항복’) 그렇지 않든(‘저항’) 자연스러운 담화가 가능하다. (ia)의 부정문인 (iia) 또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부정문이 되어도 내포문의 참-거짓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바가 없다. 즉 ‘강요하다’는 내포절에 대해 참-거짓을 부여하지 않는 비함언 동사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내포절이 전제였다면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공통적으로 참으로 유지되는 명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맥락에 따른 변동을 보이기에 함축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i) a.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다.
 b.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고, 강도는 결국 항복했다.
 c.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지만, 강도는 계속 저항했다.
 (ii) a.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b.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강도는 결국 항복했다.
 c. 경찰은 강도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강도는 계속 저항했다.

7) 한 분의 심사자께서 (13a)와 (13b)에서 동일하게 ‘압박하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의 중요한 조건을 충실성(faithfulness)에 두고 있기에, 어떤 어휘를 선택하든 문장 전체적으로 내포절의 참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영어의 *force*로, 그렇지 않다면 *pressure*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압박’과 ‘강요’의 어휘 차이보다는 문장 전체적으로 내포 명제에 대한 함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8) ‘-여’는 ‘-아/어서’에서 파생된 형태로, 형태만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국립국어원, 2005).

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압박이 원인이 되어 시장이 정책을 바꾸는 결과가 실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예문의 차이를 통해 한국어 내포절의 참-거짓을 결정하는 데에는 연결어미를 활용한 복합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을 나타내는 ‘-아/어서’는 내포절의 참을 보장하지만,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으)라고’는 그렇지 않다 (박민신, 2016).⁹⁾ 이런 점에서 한국어에서는 개별 동사를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로 구분하기보다는 연결 어미를 포함하는 복합문 전체를 기준으로 함언 구문과 비함언 구문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구분은 내포절의 명제를 부정하는 후행문을 사용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예문 (14a)의 두 문장은 자연스러운 담화를 형성하지만, (14b)에서 두 문장은 의미가 상충됨을 볼 수 있다.

- (14) a. 지역 주민들이 시장에게 정책을 바꿀 것을/바꾸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시장은 바꾸지 않았다.
 b. *지역 주민들이 압박하여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시장은 바꾸지 않았다.

연결 어미를 활용한 복합문 구조를 통해 내포문의 실현 여부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적인 대응어에 근거한 해석 혹은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 중요한 의미의 누락이나 추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압박’이라는 어휘의 일차적인 대응어로 *pressure*를 선택하거나, ‘강요’에 근거하여 *force*를 대응어로 선택한다면, 의미 전달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15) a. 지역 주민들이 압박하여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었다.
 b. The local residents *forced* the mayor to change his policy.
 (16) a. 지역 주민들이 시장에게 정책을 바꿀 것을/바꾸라고 강요했다.¹⁰⁾
 b. The local residents *pressured* the mayor into changing his policy.

9) 물론 ‘-아/어서’도 내포절의 참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로 분류되는 ‘-아/어서’이면서 후행절이 과거 시제의 평서문인 경우로 제한된다. 박민신(2016)에서 인용한 아래의 문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후행절이 명령문이라든지, 배경이나 목적의 의미로 분류되는 ‘-아/어서’의 경우에는 내포절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 각 예문에서 ‘청자가 병원에 갔다’, ‘그가 어리다’, ‘엄마가 기출한 동생을 찾았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i)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봐요.
 (ii) 그는 어려서 매우 똑똑했어.
 (iii) 엄마는 기출한 동생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0) 한 분의 심사자께서 한국어 화자들이 (16a)를 (16b)로 번역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제시된 보기 중 올바른 번역을 선택하는 방식의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 때 함의 명제의 추가와 누락은 오역이 될 것이기에 일차적인 대응어가 아니더라도 함의 정보가 일치하는 번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번역 문항을 작성하였다. 현실적으로 (16b)에서는 *tried to force*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예문 (15a)에서 ‘-여’는 전후 문장의 참을 보장하는 함언 구문이므로 이 문장은 영어의 함언 동사인 *force*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하고, (16a)는 비함언 구문이므로 영역 시 비함언 동사인 *pressure*로 번역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함언 동사 *force*를 한국어로 옮길 때는 한국어 함언 구문인 복합문으로, 비함언 동사 *pressure*를 옮길 때는 비함언 구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의 함언 동사를 한국어 비함언 구문으로 번역하거나 한국어 함언 구문을 영어의 비함언 동사로 번역한다면, 중요한 의미가 탈락되거나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3. 선행 연구

영어에서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구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rrell(1984)와 Tomioka(1985)에서 함언 동사와 관련된 함의와 전제의 추론에 대해 모국어 화자와 외국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지만, 이후 제2언어 습득이나 외국어 교육 연구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연구가 없다는 점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인지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Shim & Lee(2012)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Shim & Lee(2012)는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에 대한 인식을 내포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판별 방식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유형의 동사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Shim & Lee(2012)는 함언 동사 13개, 비함언 동사 10개로 구성된 23개의 문장에 대해 각 문항별로 피험자들이 내포구 명제의 가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아래 (17)은 Shim & Lee(2012)가 사용한 도구의 예시인데, (17a-b)는 *force*와 *persuade*가 함언 동사이므로 Yes를, (17c)에서는 *tempt*가 비함언 동사이므로 No를 선택해야 개별 동사의 함언-비함언 구분에 대해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 (17) a. Bill forced Monica to kiss him.
 --- Monica kissed Bill. (Yes/No)
- b. I persuaded her to go to the party.
 --- She went to a party. (Yes/No)
- c. The fine weather tempted me to go for a drive.
 --- I went for a drive. (Yes/No)

Shim & Lee(2012)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비함언 동사보다는 함언 동사를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했다. 각 동사에 대한 이해도는 위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비함언 동사 *forbid*가 가장 어려운 동사, 함언 동사 *let*이 가장 쉬운 동사로 나타났다. 어려운 동사에

서 쉬운 동사의 순서로 나열하면, *forbid* < *talk* < *allow* < *order* < *permit* < *scare* < *dissuade* < ... *cause* < *have* < *help* < *let* 의 순서로 정답률이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Shim & Lee(2012)는 함언 동사의 경우 행위가 발생했다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L2 학습자가 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함언 동사는 행위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Shim & Lee(201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함언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구분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인해 보는 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L2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영어 어휘의 의미 차이를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Shim & Lee(2012)와 같은 방식의 함의 관계 확인 문제뿐만 아니라, 함의 관계를 반영한 영한 번역의 문제를 함께 활용하였다. 아래 3절에서 연구 도구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개설된 <영한번역의이해>와 <영어통사론> 강의의 수강하는 학부생들이다. 고학년 전공 수업의 수강생들은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영한 번역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와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두 강의에서 각각 16명과 11명, 총 27명의 수강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참여자들 모두가 3, 4학년 재학생으로 제 1전공 혹은 부/복수 전공으로 영문과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27명의 참여자 중 23명이 토의 성적을 제출하였고, 평균 토의 점수는 876점이었다. 90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12명이었고, 최저점은 750점이었다. 토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네 명의 참여자는 자신의 영어실력을 중(세 명)과 하(한 명)로 평가하였다.¹¹⁾ 이전에 번역 강의를 수강한 참여자는 27명 중 15명이었으며,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7명 중 12명이었다.¹²⁾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높은 공인영어점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번역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며 영어를 자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영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설문에 유의미한 결

11) 한 분의 심사자께서 지적한 대로, 토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네 명의 영어실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언 동사에 대한 이해와 토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며, 설문 결과의 분석에서도 토의 점수를 중요한 변수로 삼지 않았음을 밝힌다.

12) 응답자들이 수강한 번역 강의에는 <문학번역연습(한영)>, <한영번역연습>, <국제컨벤션통번역>가 있었다.

과를 줄 수 있는 참여자들로 판단하였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은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공인영어 성적, 해외 거주 경험 등을 묻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시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설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시된 영어 문장에 대응하는 적절한 한국어 번역 문장을 고르는 객관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 문장은 함언 동사 8개와 비함언 동사 7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한국어 문장 두 개를 보기로 제시하였다. 둘 중 하나는 한국어 비함언 구문을, 다른 하나에는 한국어 함언 구문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하였다.

설문지의 세 번째 부분은 함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영어 함언 및 비함언 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대해 전체 문장과 목적어 구가 내포하는 명제 사이의 함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Yes/No 체크 방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함의 관계 확인 문제에 사용된 문장은 앞의 영한번역 문제에서 사용한 영어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였다.

각 설문지에 사용한 문장은 명확한 설문 결과를 위해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두었다. 각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논항은 모두 사람 명사를 사용하였고, 영어 문장에서는 정관사 + 명사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함언 동사의 의미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과거 시제의 평서문을 사용하였다 (각주 2 참조). 세 종류의 설문지 모두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¹³⁾

설문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서울여대 E-Class 시스템의 설문 탭과 시험 탭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업로드 후, 각 과목 수강생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3.3. 동사의 목록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한 영어의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는 기본적으로 Givón(1984)의 분류를 따른 Shim & Lee(2012)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5개의 동사 중, 12개는 Shim & Lee(2012)의 동사 목록과 공통이며, *convince*, *urge*, *pressure* 세 개의 동

13) 두 분의 심사자가 지적하신 바대로,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실험의 목적과 상관없는 보충 문항(filler items)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참여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설문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설문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현재 주어진 결과보다는 참여자들의 정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그 영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중 *force, prevent, trick, enable, let, persuade, cause, convince*는 함언 동사이며, *order, pressure, forbid, tempt, allow, permit, urge*는 비함언 동사이다. 내포구에 대한 함의를 제외한 표면적인 의미 유사성에 근거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동사의 목록을 구성하였으며, 동일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 간의 의미 차이(즉, 내포구 함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에만 설문이 요구하는 함의 관계나 번역 문항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다.

4. 결과 분석 및 논의

4.1. 종합 분석

영한 번역 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8.3/15개, 평균 정답률은 55.3%였다. 이 중 함언 동사 8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1.7개, 평균 정답률은 21.3%였으며, 비함언 동사 7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6.6개, 평균 정답률은 94.2%였다. 함의 확인 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8.2/15개, 평균 정답률은 54.6%였다. 이 중 함언 동사 8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4개, 평균 정답률은 50%였으며, 비함언 동사 7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5개, 평균 정답률은 71.4%였다.

영한 번역과 함의 확인 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와 평균 정답률이 약 8개와 약 5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시험에서 같은 영어 동사와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과 함언 및 비함언 동사의 특성을 알아야만 두 개의 보기 중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문항에서 유사하게 50%를 조금 넘는 낮은 정답률이 나왔다는 것은 응답 학생들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함언 동사 및 비함언 동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두 동사의 함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한 한국어 문장, 즉 적절한 한국어 함언 및 비함언 구문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번역 문항에서 비함언 동사 문항의 정답률은 94.2%로, 함언 동사 문항의 정답률인 21.3%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학생들이 비함언 동사보다 함언 동사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의 확인 문항에서도 비함언 동사 문항의 정답률은 71.4%인 반면, 함언 동사 문항의 정답률은 50%로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응답 학생들이 비함언 동사보다는 함언 동사의 의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4.2절과 4.3절에서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에 대해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4.2. 함언 동사 문항 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함언 동사는 *force, prevent, trick, enable, let, persuade, cause,*

*convince*로 총 8개이다. 영한 번역 설문의 평균 정답률은 21.3%로, 학생들은 총 8개 문항 중 평균 1.7개 문항에서 정답을 맞혔다. 함의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50%로, 학생들이 전체 8문항 중 평균 4개 문항에서 정답을 맞혔다.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함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영한 번역 문항의 정답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답률의 차이가 영어 함언 동사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만 이를 적절한 한국어 함언 구문으로 옮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함언 동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 설문과 함의 설문의 각 문항별 정답자 수와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즉, 함의 설문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함언 동사 문항이 번역 설문에서도 높은 정답률을 보여 일관성 있는 응답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만약 응답이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이는 동사별로 결과 보장성, 즉 함언 동사로 인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함언 동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함의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trick* (81%) > *cause* (74%) > *enable* (59%) > *prevent* (56%) > *let* (52%) > *force* (41%) > *persuade* (22%) > *convince* (1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번역 문항의 정답률은 *trick* (56%) > *cause* (33%) > *persuade* (26%) > *prevent* (15%) > *force* = *enable* = *let* (11%) > *convince* (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ersuade*를 제외하고는 두 설문에서 문항별 정답률의 순서가 유사하였다. 함의 설문에서 정답률이 50%를 넘는 문항은 *prevent*, *trick*, *enable*, *let*, *cause*로 총 8문항 중 5문항이었으며, 번역 설문에서 정답률이 50%를 넘는 문항은 *trick* 하나였다. 대부분의 동사가 함의 설문에서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persuade*만 예외적으로 번역 설문의 정답률이 미세하게 높았다. 함언 동사 문항 일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번역문항 1]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 √¹⁴) ① 경찰이 강요하여 강도가 항복했다.
② 경찰이 강도에게 항복하라고 강요했다.

[함의문항 1]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 The robber surrendered. (√Yes/No)¹⁵)

함언 동사 *force*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가 한국어 비함언 구문인 2번 보기를 적절한 번역으로 선택하여 오답이 되었다.¹⁶) 같은 동사를 사용한 함의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14) 정답인 보기에 √로 표시함

15) 부록 3의 함의문항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의 문항에서 답변 No는 주어진 문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음을 뜻한다.

16) 두 분의 심사자께서 함언 동사 *force*의 정답률이 낮은 것이 동사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원문의 통사적 구조에 충실한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실제 오답을 선택한 참여자들 역시 그런 이유에서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의 59%가 오답을 선택하였다. 함언 동사인 *prevent, enable, let*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번역 설문에서는 각각 15%, 11%, 11%의 정답률을, 함의 설문에서는 각각 56%, 59%, 52%의 정답률을 보였다. 번역 설문의 정답률이 낮은 것이 응답 학생 대부분이 함언 동사를 비함언 동사로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함의 설문의 정답률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함언 동사를 비함언 동사로 인지하여 답을 골랐다면 두 설문 모두에서 유사한 정답률이 나와야 하겠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정답률은 동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시사한다.¹⁷⁾

[번역문항 6] The swindler *tricked* the old man into lending him \$500.

√ ① 사기꾼이 노인을 속여 500달러를 손에 넣었다.

② 사기꾼이 500달러를 손에 넣으려고 노인을 속였다.

[함의문항 6] The swindler *tricked* the old man into lending him \$500.

→ The old man lent \$500 to the swindler. (√Yes/No)

문항 6은 두 설문 모두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각각의 정답률이 56%, 81%로 다른 함언 동사 문항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답을 선택하였다. 다만, 가장 높은 정답률이 나온 문항 6에서도 번역 문항의 정답률이 50% 정도라는 점과 두 설문의 정답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위에 문항 1의 분석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답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번역문항 14] The police *convinced* the man to confess his crime.

√ ① 경찰이 설득하여 남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다.

② 경찰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라고 남자를 설득했다.

[함의문항 14] The police *convinced* the man to confess his crime.

→ The man confessed his crime. (√Yes/No)

어떤 번역을 최선의 번역으로 보느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어순을 포함한 통사적 구조에 충실하기 위해 의미의 주요 부분을 누락시키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 있기에 그에 근거하여 번역 문항의 정답을 선택했음을 밝힌다.

17) 한 분의 심사자께서 함언 동사에서 번역 문항의 정답률이 함의 문항에 비해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함언 동사의 번역 문항에서 제시하는 두 개의 번역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렇다면 번역 문항의 정답률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번역 문항과 함의 문항을 구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 문항이 요구하는 답안은 원 문장이 참일 때 번역문도 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원 문장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번역 문항 6]의 영어 문장이 참일 때, 선택지로 제시된 두 번역 ①과 ②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답은 행위와 결과의 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번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항 14는 전체 함언 동사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이다. 번역과 함의 문항의 정답률이 각각 7%, 19%로 거의 모든 학생이 오답을 골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함언 동사 *convince*를 비함언 동사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언 동사 문항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설문 참여자 대부분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번역 문항의 평균 정답률이 21.3%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함언 동사를 비함언 동사로 착각하여 오답을 선택했을 것이라 가정했지만, 각각의 문항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 번역 설문과 함의 설문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했지만 두 설문의 정답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각각의 동사에 대해 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주어진 동사가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3. 비함언 동사 문항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함언 동사는 *order, pressure, forbid, tempt, allow, permit, urge*로 총 7개이다. 번역 설문에서 비함언 동사 문항의 평균 정답 개수는 6.6/7개이며, 평균 정답률은 94.2%이다. 함의 설문의 평균 정답 개수와 평균 정답률은 5/7개, 71.4%이다.

비함언 동사 문항의 경우 함언 동사 문항과 다르게 두 설문 모두에서 정답률 자체가 월등히 높게 나왔으며, 특히 번역 설문의 정답률이 함의 설문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왔다.¹⁸⁾ 번역 설문의 정답률은 약 95%로 학생 대부분이 정답을 맞혔다. 앞 절의 함언 동사 문항 분석과 마찬가지로 높은 정답률의 원인이 비함언 동사를 명확히 구분하였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판단 기준이 작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별 정답자 수와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먼저 번역 설문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order* (100%) > *tempt* = *allow* = *permit* = *urge* (96%) > *pressure* (89%) > *forbid* (85%) 문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함의 설문의 정답률은 *tempt* (89%) > *pressure* = *permit* = *urge* (74%) > *order* = *allow* (67%) > *forbid* (56%) 문항 순으로 높았다. 번역 설문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비함언 동사 문항의 정답을 맞혔다. 정답률이 평균 이하인 문항은 *pressure*와 *forbid* 두 문항 밖에 없지만 두 문항도 정답률이 각각 89%, 85%로 높게 나왔으며, 총 27명의 응답자 중 3~4명만이 오답을 선택했다.

함의 설문에서 비함언 동사 문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71.4%로, 번역 설문의 비함언 동사 평균 정답률인 94.2%에 비해 낮게 나왔다. 정답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문항은 *pressure, forbid, allow*이다. 이 중 *forbid*의 정답률이 56%로 가장 낮았다. 비함언 동사 문항

18) 이러한 결과는 함언 동사에서 번역 설문의 정답률이 함의 설문의 정답률보다 월등히 낮게 나온 것과 반대의 경향이다. 두 분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각주 16 참조), 이러한 결과는 통사 구조에 충실한 번역문을 선택하려는 경향과 번역 설문의 정답이 일치하여 발생한 결과일 수 있으며, 영어 비함언 동사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가 더 온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번역문항 2]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 √ ① 지휘관은 군인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다.
- ② 지휘관이 명령하여 군인들이 사격을 실시했다.

[함의문항 2]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 The soldiers fired. (Yes/√No)

문항 2의 번역 문항은 27명의 응답자 전원이 정답을 맞혔다. 모든 학생이 주어진 비함언 동사에 알맞은 한국어 비함언 구문을 답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함의 문항에서는 같은 동사에 대한 정답률이 67%로 확연히 낮아졌다. 함의 문항의 정답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order*의 비함언 동사로서의 특성, 즉 전체 문장이 목적어 구에 내포된 명제를 함의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번역 문항에서 보인 *order*에 대한 높은 정답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동사를 비함언 동사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번역문항 5] The parents *forbade* the children from mentioning the subject.

- √ 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다.
- ② 부모님이 금지하여 아이들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함의문항 5] The parents *forbade* the children from mentioning the subject.

→ The children didn't mention the subject. (Yes/√No)

문항 5는 번역과 함의 설문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각각의 정답률은 85%와 56%이다.¹⁹⁾ 번역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가장 낮을 뿐 여전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비함언 구문 보기를 답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혔다. 하지만 함의 문항의 정답률이 56%로 낮아진 점을 보아 문항 *order*와 마찬가지로 번역 문항의 높은 정답률이 동사 *forbid*를 비함언 동사로 정확히 인지하여 한국어 비함언 구문을 답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9) 한 분의 심사자께서 [번역 문항 5]의 첫 번째 번역에는 두 번째 번역과 달리 '금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①이 아닌 ②를 선택하여 오답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생각된다. 다른 번역 문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대응어의 존재가 올바른 번역의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①을 정답으로 제시하였는데, '금지'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만 출현하여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문항 7] The kidnapper *tempted* the child to get into the car.

- √ ① 납치범이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유인했다.
 ② 납치범이 유인하여 아이가 차에 탔다.

[합의문항 7] The kidnapper *tempted* the child to get into the car.

→ The child got into the car. (Yes/√No)

문항 7은 번역과 합의 설문 모두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았다. 두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96%, 89%이다. 두 문항에서 일관되게 높은 정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설문에 사용한 모든 동사 중에서 비합언 동사 *tempt*를 가장 올바르게, 즉 비합언 동사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합언 동사 문항을 정리하면, 합언 동사 문항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두 설문의 정답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일관적인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비합언 동사 문항의 높은 정답률이 비합언 동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합언 동사가 내포구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번역 문항의 정답을 맞힌 것이라면 합의 문항에서 훨씬 높은 정답률이 나왔어야 할 것이다. 비합언 동사 번역 문항의 높은 정답률은 영어 문장 속 본동사를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국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번역 방식을 적용하였거나 모국어인 한국어의 특성, 즉 한국어의 경우 동사 자체만으로는 행위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고 함축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다른 판단 기준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4.4. 특정 응답자별 분석

총 27명의 응답자 중 12명의 학생이 900점이 넘는 토익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번역 설문에서 토익 고득점자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은 8.8/15개와 58.3%로, 이는 고득점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15명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인 7.9/15개와 52.9%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이었다. 합의 설문에서 토익 고득점자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은 9.1/15개와 60.6%로, 고득점자를 제외한 학생 15명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인 9/15개와 60%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과목 이상의 번역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총 4명이었다. 번역 설문에서 이들 응답자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은 8개와 53.3%였고, 그 외 학생 23명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은 8.3개와 55.7%였다. 합의 설문에서 이들 응답자의 평균 정답 개수와 정답률은 9.8개와 65%로, 그 외 학생들의 정답 개수와 정답률인 8.9개와 59.4%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합언 동사와 비합언 동사를 구분하는 지식이 토익 고득점 취득이나 번역 강의 수강을 통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어 교육 및 번역 훈련에서 어휘 의미에

대한 의미론적 통찰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4.5. 논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언 동사의 경우 번역 문항과 함의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낮게 나왔기에 응답자들이 함언 동사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함언 동사의 경우, 번역 문항과 함의 문항의 정답률에 큰 차이가 있었기에 일관적인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응답자들이 비함언 동사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대적으로 응답자들이 함언 동사보다는 비함언 동사의 특성을 잘 파악했다. 높은 공인영어성적이나 해외 경험을 지닌 학생들조차도 함언 동사가 지닌 행위의 실현 및 결과 보장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표면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대응어를 설정하는 방식(예를 들어, *force* = '강요하다')으로 행해지는 영어 어휘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의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는 결국 의사소통이나 번역의 심각한 오류를 야기하게 된다. 함언 동사가 지닌 결과 보장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대응어인 비함언 동사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비함언 동사를 함언 동사로 인지하여 본래 동사에 없던 결과 보장성을 추가하는 경우, 문장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요하다'와 *force*를 대응어로 판단하여 '강요했다'라는 한국어 비함언 구문을 함언 동사 *forced*로 옮기거나 영어 *forced*를 한국어 '강요했다'로 번역하는 경우 결과 보장성이 추가되거나 누락되어 오역이 된다. 따라서 영어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과정이 어휘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동사는 영어 비함언 동사와 마찬가지로 내포절의 실현이 함축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한국어 동사와 달리 결과 보장성을 지니는 영어 함언 동사의 의미 특성을 학습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함언 동사가 보장하는 행위의 실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 함언 구문으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의 함언 동사와 비함언 동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영어 동사를 함언 동사보다는 비함언 동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함언 동사에 대한 이해가 번역과 함의 확인 모두에서 비함언 동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사 그 자체만으로는 영어 함언 동사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국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 자체가 내포절의 참을 보장하지 않으며, 연결 어미를 활용한 복합문 구조를 통해서

만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 보장성은 함축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가 영어 동사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이러한 모국어의 특징을 영어에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Odin, 1989; Slabakova, 2000; Kim, 2005; Yin & Kaiser, 2011; Kim et al., 2020). 의미의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뚜렷한 실수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미전이로 인한 오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휘 교육의 과정에서 영어 함언 동사와 한국어 대응어의 의미 차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어휘 교육과 번역 훈련에 있어서 의미론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언어 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표면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모국어 어휘 지식을 외국어에 전이할 때, 외국어 학습 및 번역의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차적 의미 암기에 집중된 어휘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어 교육이나 번역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공자들의 훈련 과정에 모국어와 외국어의 어휘 및 구문 의미에 대해 보다 엄밀한 탐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민신. (2016). 연결어미 ‘-어서’의 다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1-31.
- Beavers, J., & Lee, J. (2020). Intentionality, scalar change, and non-culmination in Korean caused change-of-state predicates. *Linguistics*, 58(5), 1233-1283.
- Carrell, P. (1984). Inferencing in ESL: Presuppositions and implications of factive and implicative predicates. *Language Learning*, 34(1), 1-21.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Benjamins Publishing Co.
- Karttunen, L. (1971). Implicative verbs. *Language*, 47(2), 340-358.
- Karttunen, L. (2012). Simple and phrasal implicatives. In *Proceedings of First Joint Conference on Lexical and Computational Semantics*, 124-131.
- Kim, J.-Y. (2005). *L2 acquisition of transitivity alternations and of the entailment relations for causatives by Korean speakers of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of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Manoa, HI.
- Kim, K., Ko, H., & Yang, H. (2020). Telicity and mode of merge in L2 acquisition of resultatives. *Language Acquisition*, 27(2), 117-159.

- Odin, T. (1989). *Language transf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m, J., & Lee, H. (2012). An analysis of semantic knowledge of L2 adult learners of English concerning implicative/non-implicative verb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23-40.
- Slabakova, R. (2000). L1 transfer revisited: the L2 acquisition of telicity marking in English by Spanish and Bulgarian native speakers. *Linguistics*, 38(4), 739-770.
- Tomioka, T. (1985). How well can Japanese ESL students draw inferences from English sentences?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1), 56-75.
- Yin, B., & Kaiser, E. (2011). Chinese speakers' acquisition of telicity in English. In *Selected Proceedings of the 2020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182-198.

부록 1. 사전 설문지

1. 2020-2학기 기준, 몇 학년 몇 학기에 재학 중인가요?
(ex. 3학년 6학기 또는 4학년 7학기)
2.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나요?
 - 1) 상
 - 2) 중
 - 3) 하
3. 토익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 점수, 모의토익 점수 모두 입력 가능/둘 다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4.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나요?
 - 1) 예
 - 2) 아니요(건너뛰기:6)
5. 거주 국가와 기간을 적어주세요.
6. 이전에 번역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나요?
 - 1) 예(건너뛰기:7)
 - 2) 아니요
7. 수강한 적이 있다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모두 적어주세요.
(ex. 한영번역연습, 영한번역의이해 등)

부록 2. 영한 번역 설문지

* 아래 주어진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 ① 경찰이 강요하여 강도가 항복했다.
- ② 경찰이 강도에게 항복하라고 강요했다.

2.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 ① 지휘관은 군인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다.
- ② 지휘관이 명령하여 군인들이 사격을 실시했다.

■ commander 지휘관, 사령관

3. The local residents pressured the mayor into changing his policy.

- ① 지역 주민들은 시장에게 정책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 ② 지역 주민들이 압박하여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었다.

4. The doctor prevented the patient from drinking water after the surgery.

- ① 의사가 금지하여 환자는 수술 후에 물을 마시지 않았다.
- ②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5. The parents forbade the children from mentioning the subject.

- 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다.
- ② 부모님이 금지하여 아이들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6. The swindler tricked the old man into lending him \$500.

- ① 사기꾼이 노인을 속여 500달러를 손에 넣었다.
- ② 사기꾼이 500달러를 손에 넣으려고 노인을 속였다.

■ swindler 사기꾼

7. The kidnapper tempted the child to get into the car.

- ① 납치범이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유인했다.
- ② 납치범이 유인하여 아이가 차에 탔다.

8. The manager enabled the new staff to log on to the program.
- ① 매니저가 권한을 주어 신입사원이 그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었다.
 - ② 매니저가 신입사원에게 그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9. The parents allowed the children to use their car.
- ①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신들의 차를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
 - ② 부모님이 허락하여 자식이 부모님의 차를 사용했다.
10. The manager let the staff take a day off.
- ① 매니저가 허락하여 직원이 하루 휴가를 냈다.
 - ② 매니저는 직원에게 하루 쉬어도 좋다고 했다.
11. On Christmas Eve, the parents permitted the children to stay up late.
- ① 부모님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을 허락했다.
 - ② 부모님이 허락하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12. The director persuaded the head of the studio to invest in her new film.
- ① 감독이 영화사 책임자를 설득하여 투자를 받아냈다.
 - ② 감독은 투자를 받아내려고 영화사 책임자를 설득하였다.
13. The soccer player caused the opponent to make a big mistake.
- ① 그 축구선수로 인해 상대편이 큰 실수를 했다.
 - ② 그 축구선수는 상대편의 큰 실수를 유도했다.
14. The police convinced the man to confess his crime.
- ① 경찰이 설득하여 남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다.
 - ② 경찰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라고 남자를 설득했다.
- confess 자백하다
15. The CEO urged the workers to return to work.
- ① CEO는 직원들이 업무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
 - ② CEO가 권고하여 직원들이 업무로 복귀하였다.

부록 3. 함의 확인 설문지

* 아래 주어진 각 영어 문장과 관련된 질문을 읽고 (Yes/No) 중 하나에 체크하세요.

- Yes 체크 - 주어진 문장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 No 체크 - 주어진 문장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1. The police forced the robber to surrender.

→ The robber surrendered. (Yes/No)

2. The commander ordered the soldiers to fire.

→ The soldiers fired. (Yes/No)

■ commander 지휘관, 사령관

3. The local residents pressured the mayor into changing his policy.

→ The mayor changed his policy. (Yes/No)

4. The doctor prevented the patient from drinking water after the surgery.

→ The patient didn't drink water after the surgery. (Yes/No)

5. The parents forbade the children from mentioning the subject.

→ The children didn't mention the subject. (Yes/No)

6. The swindler tricked the old man into lending him \$500.

→ The old man lent \$500 to the swindler. (Yes/No)

■ swindler 사기꾼

7. The kidnapper tempted the child to get into the car.

→ The child got into the car. (Yes/No)

8. The manager enabled the new staff to log on to the program.

→ The new staff logged on to the program. (Yes/No)

9. The parents allowed the children to use their car.

→ The children used the parents' car. (Yes/No)

10. The manager let the staff take a day off.
→ The staff took a day off. (Yes/No)

11. On Christmas Eve, the parents permitted the children to stay up late.
→ The children stayed up late. (Yes/No)

12. The director persuaded the head of the studio to invest in her new film.
→ The head of the studio invested in her new film. (Yes/No)

13. The soccer player caused the opponent to make a big mistake.
→ The opponent made a big mistake. (Yes/No)

14. The police convinced the man to confess his crime.
→ The man confessed his crime. (Yes/No)

15. The CEO urged the workers to return to work.
→ The workers returned to work. (Yes/No)

■ confess 자백하다

유은지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번지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석사 졸업
이메일: 0424yej@hanmail.net

이영주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번지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화: (02)970-5420
이메일: youngjoo@swu.ac.kr

Received on April 22,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4, 2021

Accepted on June 30, 2021